

인 사 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한겨울 맹추위도
입춘을 지나면서 한결 풀렸다고는
하지만 봄 햇살의 따사로움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봄기운이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시고
계신 중앙총회 의원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종단은 정부와 여당의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향된 종교적 이해와 종교 갈등 조장,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일방통행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단호한 대정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 26일에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우리 스스로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외부에 의존해왔거나 좀 더

국민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성찰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사 운동을 전개할 것을 종도 여러분께 제안드렸습니다.

민족문화수호 활동, 그리고 자성과 쇄신 결사는 종단과 사찰운영에 대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 전환하고, 한국 불교의 사회 지도력과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승가의 위의를 제고하고 사부대중의 결속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궁극적으로서는 자리이타, 요익중생의 종단을

**구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어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은 총무원만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종도가 일심으로
단결하여 추진해야만 하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총회 의원스님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국불교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제안 드린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에
중앙총회 의원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 드리며, 지혜로운
제안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은 제33대 집행부 2년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종단은 주지
인사 고과제도의 시행과 승가 교육을
개선을 추진하여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초석을 닦아 왔으며, 사회적
공동선 실현과 자비나눔 실천을 통해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선센터 개원과 해외교구**

설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유네스코와의 국제 구호 협약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과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제 186회 중앙총회는 결산 총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집행부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더 나은 종단 운영과 종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회에 집행부에서는 총무원법, 법인법, 해외교구특별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집행부 조직 운영의 현실에 맞게 각 부서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법인법 제정안은 사찰과 법인의 불분명한 관계를 명확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하였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국제 포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해외교구 특별법안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총회에 상정하였던 승려복지법, 법계법, 종무원법도 종단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혜를 모아주셔서 집행부의 종무 집행에 큰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앙총회 의원스님 여러분!
제33대 총무원은 국민들과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앙종무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성과 쇄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은 더디고 힘들지라도,**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희망
임을 자각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길에 중앙총회 의원스님
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비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3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